

국별 리포트

# 튀니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 I. 일반개황

면적	162천 km <sup>2</sup>	G D P	459 억 달러 (2011년)
인구	10.66 백만명	1 인 당 GDP	4,308 달러 (2011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Tunisian Dinar(TD)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1.41

- 북부 아프리카 중앙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튀니지는 면적이 162천 km<sup>2</sup>로 한반도의 4분의 3에 해당하고, 인구도 1,066만 명에 불과하여 마그레브 지역으로 지칭되는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등 주변국들에 비해 소규모 국가임.
  - 국민의 98%가 아랍인으로 이루어진 아랍국가이며, 이슬람교가 인구의 99%를 점하는 유일종교로서 국민 대부분이 온건한 수니파임.
  - 경제는 과거 농업, 원유, 인광석 등에 주로 의존하여 왔으나, 제조업, 관광업 등의 적극적인 육성으로 이들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음.
- \* 주요 부존자원: 인광석(약 65억톤 매장), 석유(425백만 배럴 매장), 천연가스(1천억m<sup>3</sup> 매장)
- 벤 알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하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으나, 2011년 시민혁명으로 벤 알리 정권이 붕괴되면서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었고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음.
  - 한편, 시민혁명의 원인인 고실업률과 지역간 격차, 낮은 생활수준 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상당기간 튀니지 정치·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2011년 시민혁명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부터 점진적 회복 추세

- 튀니지는 2010년까지 농업생산 증가와 관광업 등의 호조세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2011년 1월 발생한 시민혁명으로 인하여 2011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의 양상을 보였음.
  - 정치·사회적 불안은 관광수입의 급감, 파업에 따른 인산염 수출 차질 등 주요 산업의 부진으로 이어졌으며, 유로존 위기로 인한 수출 및 FDI 유입 감소 등 부정적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2011년 경제성장률은 -1.8%를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관광수입과 FDI 유입의 점진적 회복세,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 확장 재정정책에 힘입어 2.7%의 경제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3년에도 경제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나, 튀니지의 관광수입, FDI 유입, 수출 등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 보조금 지급과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심화

- 재정수지는 연료 및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공공부문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1년에는 세수의 증가 및 비경상적 수입 발생 등 재정수입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제가격에 따른 연료 및 식료품 보조금 지급 증가, 공공부문 임금 상승, 청년실업 대책 마련 등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의 3.5%로 확대되었음.

- 2012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지속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되어 GDP의 7% 수준에 이를 전망이며, 정부는 2013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5.5%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격통제 등으로 비교적 낮은 물가상승률 유지

-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생필품 가격 통제 등에 힘입어 연 3~4%대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
- 2011년에도 원유, 식료품 국제가격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민심 수습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지속과 정치·사회 불안정에 따른 국내 수요 감소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3.5%에 머물렀음.
- 2012년에는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통화량 증가, 리비아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식품가격 상승 등으로 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sup>e</sup>	2012 <sup>f</sup>
경제성장률	4.5	3.1	3.1	-1.8	2.7
재정수지 / GDP	-0.7	-2.7	-1.0	-3.5	-7.0
소비자물가상승률	4.9	3.5	4.4	3.5	5.0

자료: IMF.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관광, 운송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튀니지는 2011년 GDP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 운송 등 서비스업이 세계 경기 침체 등 외부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또한, 지리적으로 유럽에 근접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수출의 80% 이상, 관광객의 80% 이상이 EU에 편중되어 있어 경제성장이 EU의 경제 상황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고학력 실업자 양산 등으로 높은 실업률 지속**

- 튀니지는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어 거시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청년실업 문제가 2011년 시민혁명의 도화선으로 작용하였으며, 시민혁명 이후 경제 침체, 외국인투자 감소 등으로 실업률은 더욱 상승하여 2011년말 1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청년실업률은 2011년 42%에 달하였으며, 고학력자 실업률은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대졸자 등 고학력자의 양산에 비하여 실제 산업에서 요구되는 숙련도는 높지 않은데서 발생하는 노동수급의 구조적 불일치에 기인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나. 성장 잠재력

□ **비교적 우수한 인적자원과 양호한 기업환경**

- 튀니지는 초등교육 이수율이 100%에 이르며 식자율(literacy rate)이 78% 수준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임.
- \* 높은 교육수준은 성장잠재력인 동시에 노동수급 불일치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작용
- 교역, 서비스 분야에서 지역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하여 왔으며, 특히 도로, 철도, 해상운송 인프라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낮은 조세 수준과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기업 친화적인 사업 환경 제공으로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2012. 6월) 순위에서 185개국 중 50위를 차지하는 등 기업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임.

□ 수출제조업 육성으로 상대적으로 다변화된 경제구조 보유

- 튀니지는 과거 농업, 원유, 인산염 등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였으나, EU와의 자유무역협정(1998) 등을 기반으로 수출제조업과 관광업을 꾸준히 육성한 결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다변화된 경제구조 보유

\* GDP 구성(2011): 서비스업 63%, 제조업 27%, 농업 10%

- 수출품목도 과거에는 섬유제품과 식료품 가공 위주의 저부가가치 제품 위주였으나,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전기·전자 제품 등으로 다변화해 가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섬유산업을 대체할 기계·전기전자산업 및 관광업 육성

- 튀니지 정부는 2005년 1월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re Arrangement) 종료\* 이후 국제경쟁력이 저하된 섬유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기계·전기 전자 산업, 관광업 육성에 주력해 왔음.

\* 섬유제품의 EU시장 수출시 특혜를 주었던 쿼터시스템이 종료되어, 튀니지 섬유제품은 동유럽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였음.

- 기계·전기전자 산업은 수년간 매년 7% 이상 성장하면서 제조업 분야 중에서는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수십 건의 차량 및 항공부품 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음.

3. 대외거래

□ 관광수입 감소 및 수출 부진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

- 튀니지는 경제개발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본재, 휘발유, 식료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상수지도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관광소득, 운송소득, 해외근로자 송금 등을 통하여 상품수지 적자를 일부 보전하고 있는 구조임.
- 2011년에는 관광수입의 급감(전년 대비 33% 감소), 수출 부진 및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2010년 4.7%에서 7.3%로 대폭 확대되었음.
- 2012년 들어 관광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빠른 수입 증가세와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GDP의 7.0%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상품수지(백만 달러) : -4,574(2010) → -5,336(2011) → -5,620(2012)
- 서비스수지(백만 달러) : 2,460(2010) → 1,488(2011) → 1,689(2012)
- 소득수지(백만 달러) : -1,925(2010) → -1,512(2011) → -1,744(2012)
- 경상이전수지(백만 달러) : 1,935(2010) → 2,029(2011) → 2,105(2012)

□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FDI 유입 감소 등으로 외환보유액 급감

- 2011년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정치·사회적 불안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유보로 FDI 유입이 대폭 감소(전년 대비 26% 감소) 함에 따라 2011년말 외환보유액은 전년말 대비 18% 감소한 7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경상수지 악화에 따른 평가절하 압력으로 정부가 보유외환 매각을 통한 환율방어에 나선 것도 외환보유고 감소 원인으로 작용
- 2012년 들어 외환보유고는 더욱 감소하여 2012년 6월말 기준 67억 달러(3.8개월분 수입액 상당금액)를 기록하였으나, FDI 유입 회복세로 2012년말에는 전년말 수준(74억 달러)을 회복할 전망이다.

□ 외채 규모는 과중한 수준이나,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외채상환불능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외채 규모는 GDP 대비 50%로 다소 과중한 편이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로 2012년에는 GDP 대비 54%에 이를 전망이다.

○ 그러나 AfDB, IBRD 등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원, 정부 외채 만기구조상 2013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3.3억 달러의 유로 본드를 제외하고는 2017년까지 상환스케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외채상환불능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튀니지는 전통적으로도 국제사회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시민 혁명 이후 ‘아랍의 봄’의 선구자적 지위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지원 의지가 보다 강화되면서 AfDB와 IBRD로부터 각각 10억 달러와 15억 달러 지원, 카타르로부터 5억 달러 대출, 미국으로부터 6.5억 달러 보증 등 금융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sup>e</sup>	2012 <sup>f</sup>
경 상 수 지	-1,711	-1,234	-2,104	-3,371	-3,245
경 상 수 지 / GDP	-3.8	-2.8	-4.7	-7.3	-7.0
상 품 수 지	-4,010	-3,699	-4,575	-4,799	-5,141
수 출	19,184	14,419	16,431	17,824	17,976
수 입	23,194	18,117	21,005	22,623	23,117
외 환 보 유 액	8,813	10,647	9,000	7,357	7,423
총 외 채 잔 액	20,776	21,712	21,584	23,183	24,492
총 외 채 잔 액 / GDP	46.3	49.8	48.6	50.5	54.3
D S R	7.3	9.6	9.6	9.7	10.4

자료: IMF, EIU.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시민혁명으로 벤 알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체제 붕괴

○ 벤 알리(Zine el-Abidine Ben Ali) 전 대통령은 1987년 집권한 이래 언론 통제,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최근까지 국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음.



- 그러나 2010년 12월 고학력 실업자인 청과물 행상 청년의 분신자살로 촉발된 시위사태가 고실업률 등에 항의하는 전국적 시위로 확산되었으며, 결국 벤 알리 전 대통령이 201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함에 따라 23년간 지속되어 온 벤 알리 정권이 붕괴됨.

#### □ 제헌의회 선거는 공정하게 실시되었으나 정치세력간 긴장 고조

- 벤 알리 정권 붕괴 후 2011년 10월 제헌의회(National Constituent Assembly)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었음. 선거 결과 이슬람 세력인 엔나흐다(Ennahdha)당이 최다의석을 차지하였으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CPR당, Ettakatol당과 연립정당을 구성하였음.
  - 대통령으로는 CPR당의 몽세프 마르주키(Moncef Marzouki)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로는 최다의석을 차지한 엔나흐다당의 하마디 제발리(Hamadi Jebali)가 임명되었음.
- 제헌의회의 새로운 헌법 초안과 관련하여 각 정당별 이견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13년 6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및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대통령선거 및 총선 실시로 새로운 정권이 안착될 때까지는 정치세력간 갈등 지속 및 국민 불만 증대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될 전망이다.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높은 실업률 등에 대한 국민 불만으로 소요사태 재발 가능성 상존

- 튀니지 시민혁명은 벤 알리 전 대통령의 퇴진과 과도정부 수립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시민혁명 이후 외국인투자 감소, 실업률 급등 등 경제적 어려움 가중으로 국민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소요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또한, 벤 알리 집권기간 중 일부 특권층에 대한 특혜 집중, 연안지역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등으로 야기된 소득불평등이 사회 불안요소로 잠재되어 있음.

## □ 살라피주의자 관련 소요사태 발생

- 이슬람 근본주의자인 살라피주의자(Salafists)가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요사태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 조성
- 2012년 6월 수도 튀니스의 한 전시회에서 일부 작품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주장으로 발생한 대규모 폭동과 9월 발생한 미 대사관 폭력 시위 사태 등

## 3. 국제관계

### □ EU 및 미국과 우호관계 지속

- EU는 튀니지의 가장 중요한 교역파트너로서, 미국과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이들 국가와의 우호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일부 아랍국가와는 긴장관계 형성 가능성 잠재

- 튀니지는 그동안 주변 아랍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정부 입장에서도 원조 또는 투자의 형태로 주변 아랍국가의 도움이 필요함.
- 그러나 벤 알리 전 대통령에게 망명지를 제공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벤 알리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리비아와는 긴장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최근 외채 연체 사례 없음

- 튀니지는 최근 10년간 외채에 대한 연체 사실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함.



□ 주요협정 : 사증면제협정('69), 문화협력협정('69), 투자보장협정('75), 이종과세방지협정('88), 과학기술협정('94), 환경협력협정('07)

□ 우리나라와의 2011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감소한 2.3억 달러 기록

- 수출은 자동차,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를 중심으로 약 1.9억 달러, 수입은 의류,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약 0.4억 달러를 기록함.
- 2012년 들어서는 튀니지의 정치가 비교적 안정됨에 따라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여 1월~10월까지의 교역량이 4.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해외직접투자(2012년 6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6건, 3,643천 달러

<표 4> 한·튀니지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09	2010	2011	주요 품목
수 출	126,825	344,789	185,610	자동차,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등
수 입	18,904	34,885	42,658	의류, 알루미늄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튀니지는 관광, 운송, 통신 등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섬유, 전기·전자 등 제조업, 농업 등 다양한 산업의 호조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까지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음.
- 그러나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소요사태로 23년간 지속된 벤 알리 정권이 붕괴되는 등 사회불안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2011년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 재정·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환보유고 감소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되었음.
- 2012년에는 정치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관광업, FDI 유입 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2.7%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투자국인 유로존의 침체 장기화가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벤 알리 퇴진 후 제헌의회 선거가 공정하고 평화롭게 실시되는 등 정치적인 안정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나, 2013년 6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및 총선으로 새로운 정권이 안착될 때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 또한, 시민혁명의 원인을 제공한 실업문제가 시민혁명 후 더욱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국민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소요 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GDP 대비 외채규모가 50% 수준으로 다소 과중한 편이나, 지난 10년간 연체실적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어 외채상환불능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책임조사역 조예림 (☎02-3779-5720)

E-mail: [yrcho@koreaexim.go.kr](mailto:yrcho@koreaexim.go.kr)